

Political Base for the Father of King

운현궁, 흥선대원군의 꿈이 실현된 사저

조선시대 말기는 혼란스럽고 위태로웠다. 적통이 끊겨 멀리서 왕가의 친척을 데려다 국새를 맡기는 일이 벌어졌다. 그럴수록 임금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권문세가가 정국을 좌지우지했다. 19세기 중엽에 즉위한 철종은 강화도의 촌부였고, 고종은 쇠락한 왕가의 자제였다. 서울 운현궁(雲峴宮)은 고종이 평범한 소년 시절에 살던 잠저(潛邸)이자 그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생활했던 가옥이다. 대원군은 이곳에서 아들을 주상으로 만들고, 스스로 그에 버금가는 권세를 누렸다.

사진 이진욱 기자 · 글 박상현 기자



운현궁은 고층 빌딩에 둘러싸인 은밀한 고택이다.
이스름이 질 때 방문하면 조용히 둘러볼 수 있다.



대원군은 신왕의 친아버지를 가리키는 칭호다. 조선시대에 대원군으로 추존된 인물은 모두 네 명이었는데, 그중 살아서 대원군이 된 사람은 이하응 뿐이었다. 그는 본래 인조의 직계 후손이었으나, 아버지가 정조의 이복동생인 은신군의 양자가 되면서 영조의 고손이 됐다. 1820년에 태어나 10대에 부모를 여윈 뒤 24세에 흥선군으로 책봉됐다. 그러나 이때는 외척의 세력이 워낙 강해 왕손이라는 지위가 결코 달갑지 않은 시기였다. 자칫하면 역모를 꾸렸다는 죄목으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일례로 철종의 선대 임금인 헌종이 승하했을 때 유력한 왕위 계승자로 거론됐던 이하전은 21세에 사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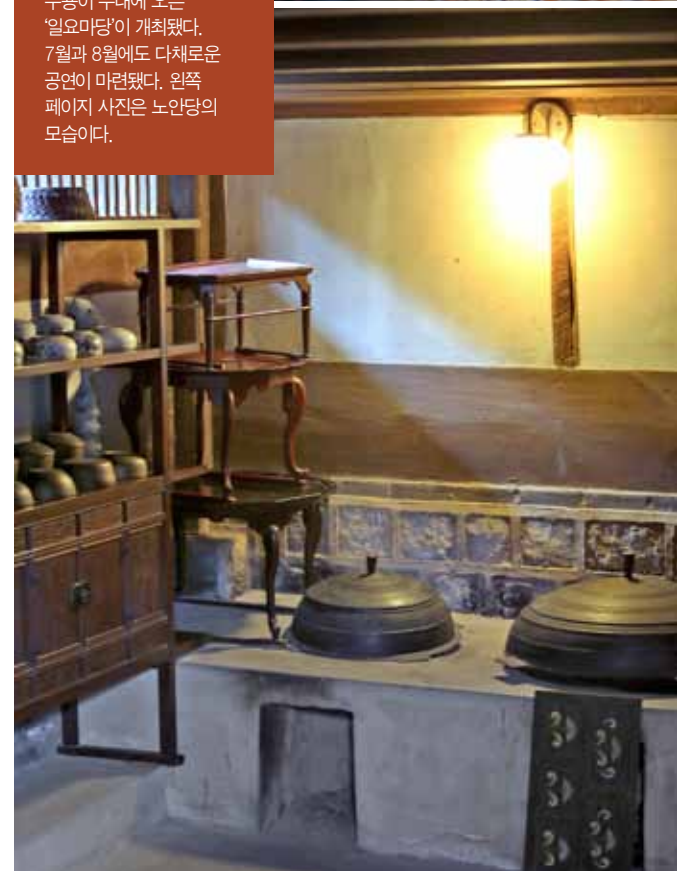
이하응은 흥선군이 된 뒤에 '상갓집 개'처럼 살았다. 김동인이 쓴 장편소설 '운현궁의 봄'에는 그가 굴욕을 감내하는 과정이 자세히 묘사돼 있다. 행색은 "해어진 도포, 떨어진 갓, 어느 모로 뜯어보든지 표랑객" 같았고, 생활은 "주린 배를 움켜쥐고 투전판이며 술집을 찾아서 시정의 무뢰한들과 어깨를 겨루고 배회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모멸과 수처에 대해 무신경해질 정도로 바닥에 떨어진 삶을 영위했다. 목숨을 부지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철종이 왕좌에 올랐을 때 왕실의 최고 어른은 순조의 비인 순원왕후였다. 안동 김씨인 순원왕후는 손자인 헌종과 철종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했다. 당연히 안동 김씨는 세도가로서 막후에서 막강한 힘을 휘둘렀다. 철종 8년에 순원왕후가 세상을 뜨자 대왕대비의 존호는 헌종의 어머니인 신정왕후에게 넘어갔다. 풍양 조씨인 그는 안동 김씨 천하를 뒤엎고자 했다. 흥선군은 신정왕후에게 접근해 후사가 없는 철종이 붕어하면 둘째 아들을 왕으로 지명해 달라고 설득했다. 철종과 항렬이 같은 자신보다는 나이가 어린 아들인 명복이 후계자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1863년 12월 철종이 대를 이을 자식을 두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흥선군이 고대하던 순간이었다. 마침내 신정왕후는 흥선군의 아들을 새로운 왕으로 책봉한다는 교서를 내렸다. 명복이 상감 자리에 오르면서 흥선군은 흥선대원군으로, 흥선군 사택은 운현궁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흥선군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쓸쓸하기 짝이 없던 그 집에도 드디어 봄이 찾아온 것"이었다. 보잘것없던 그의 사저 역시 "정치 중심지이자 이 나라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이와 함께 조선의 권력은 순식간에 창덕궁에서 운현궁으로 이동했다.



9월 운현궁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쪽 염색 작품이 전시된 '가을에 쪽빛이 날라다'와 국악, 전통 무용이 무대에 오른 '일요마당'이 개최됐다. 7월과 8월에도 다채로운 공연이 마련됐다. 왼쪽 페이지 사진은 노안당의 모습이다.





윤현궁에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유물이 많다. 노안당의 굴뚝, 노안당 지붕에 있는 차양, 높게 쌓아 올린 노안당의 기단,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이들, 노락당의 기둥머리 장식인 공포, 고종과의 인연이 얽혀 있는 '경송비'(왼쪽 위 사진부터 시계 방향으로).

도심 속에 숨은 조선 왕실의 고택

'윤현'은 서운관(書雲觀) 앞에 있는 고개를 의미한다. 기상청에 해당되는 서운관은 세조 때 관상감(觀象監)으로 개칭됐으나 계속해서 통용됐다고 한다. 고종이 등극하면서 윤현궁은 궁궐 같은 집으로 변모한다. 곧바로 증축 공사가 시작돼 1864년 주요 건물이 속속 준공됐다. 규모가 가장 컸을 무렵에는 왕궁처럼 사대문이 있을 정도로 위용이 대단했다. 대문 가운데 하나인 경군문(敬觀門)은 창덕궁에 거주하던 고종이 윤현궁을 드나들 때 사용하는 전용 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후문만 남아 있고, 전체적인 면적도 크게 줄어들었다.

오늘날 윤현궁의 입구는 인사동에서 삼일대로를 건너면 보인다. 자그마한 문으로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경비와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처소인 수직사(守直舍)가 시야에 들어온다. 수직사 앞에는 넓은 마당이

자리하는데, 각종 행사와 공연이 열린다. 마당을 둘러싼 담 중에는 화려한 문양이 들어간 꽃담도 있다.

본채로 향하는 솟을대문은 수직사 옆에 있다. 유난히 높은 문 앞에는 말이나 가마에서 오르내릴 때 쓰는 노뚝들이 놓여 있다. 원래는 대문을 잠그는 장치가 바깥쪽에 있었으나 1996년에 바로잡아 현재는 안쪽에 설치돼 있다.

윤현궁은 노안당(老安堂), 노락당(老樂堂), 이로당(二老堂)이 남북 방향으로 배치돼 있다. 그중 솟을대문을 통과하면 만나는 노안당이 가장 남쪽에 위치한다. '노안'이라는 당호는 '노인을 편안하게 한다'(老子安之)는 논어 구절에서 유래했다. 물론 노인은 고종의 친부인 흥선대원군을 뜻한다. 노안당은 대원군이 평상시 거처하는 사랑채였으며, 그가 1898년 임종한 곳이기도 하다.

흥선대원군은 12세에 군주가 된 고종을 대신해 정치에 깊숙이 관여했다. 신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했지만, 오히려 대원군의 목소리가 컸다. 그는 노안당에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했다. 봉당의 진원지로 지목된 서원을 철폐하고, 양반에게도 과세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개혁 정책은 논란을 일으켰지만, 대놓고 반대하는 세력은 없었다. 하늘 같은 대원군의 위세는 1994년 발굴된 노안당의 상량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량문에는 대원군이 '전하' 다음으로 높은 호칭인 '합하'(閣下)라 하고, 그의 지위가 문무백관 중 으뜸이라고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의 치세는 오래 가지 못했다. 1872년 고종이 친정을 선언하면서 차츰 정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솟을대문의 자물쇠가 바깥쪽에 있었던 이유도 대원군의 움직임을 막기 위한 조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두 노인을 위한 건물’을 의미하는 이로당은 금남의 구역이었다. 안살림의 최고 책임자였던 부대부인과 여성들이 기거했다. 정면 7칸, 측면 7칸으로 크기는 노안당과 비슷하며, 세부적인 장식도 흡사하다. 노락당과 행각으로 연결돼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구조는 무척 폐쇄적이다. 입구(口) 자 모양을 띠고 있으며, 안쪽에 따로 정원이 있다. 밖에서는 정원에서 하는 일을 볼 수 없도록 설계됐다. 지금도 신을 벗고 마루에 올라가지 않으면 이로당 내부를 살필 수 없다.

사실 이로당 북쪽에는 운현궁의 또 다른 건물인 ‘영로당’(永老堂)이 있다. 이로당과 건축 시기가 같은 영로당은 이로당과 달리 직사각형 형태이다. 하지만 개인이 건물을 구입해 ‘김승현 가옥’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운현궁과는 담으로 가로막혀 관람이 불가능하다.

이로당 주변에는 소소한 볼거리가 많다.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면 얼음을 보관하는 석빙고와 대원군이 난을 올려놓고는 했다는 무승대(茂承臺)가 보인다. 또 고종이 어렸을 때 즐겨 오르던 소나무가 있던 자리에 세워진 비석인 경송비(慶松碑)도 눈에 띈다.

이로당을 둘러보고 다시 마당으로 나오면 유물전시관이 있다. 전시관에는 운현궁을 굽어볼 수 있는 축소 모형이 만들어져 있고, 문방시우와 나전칠기함 등 운현궁에서 쓰인 유물이 진열돼 있다. 또 고종과 명성황후의 가례 복식, 흥선대원군이 펼쳤던 각종 정책과 외세가 밀려들어왔던 당시의 정세를 설명하는 자료도 엿볼 수 있다.

Information

운현궁 여행 길라잡이

▶ **관람 시간과 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장한다.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의 오후 6시에 문을 닫는다. 여름에는 한시적으로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을 하기도 한다. 월요일은 휴관한다. 올해 3월 20일부터 무료 관람을 실시하고 있다. 음성 해설 가이드 대여료는 1천100원이다.

▶ **가는 법**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가깝다. 4번 출구로 나오면 도보로 5분 정도 걸린다. 종로3가역에서 내려 걸어갈 수도 있다.

▶ **체험 프로그램** 전통의상을 입고 운현궁을 가늠며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전통예절 교실, 문화 강좌 등이 펼쳐진다. 학생, 교포, 다문화가정,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예절 교실은 화-금요일에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다. 문화 강좌는 보자기 교실, 전통자수, 서예 교실 등이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운현궁 웹사이트(www.unhyeongu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대원군의 사저였던 운현궁은 어떻게 공공에게 개방된 문화재가 된 것일까. 대원군의 장자인 이재면에겐 넘어온 운현궁의 소유권은 대대로 이어졌다. 이재면의 아들인 이준용은 혈육이 없었으나 고종의 후손을 양자로 삼아 물려졌다. 해방된 뒤에는 대원군의 5대손인 이청이 관리했다. 그러나 그가 1991년 양도 의사를 밝혔고, 2년 뒤 서울시가 매입해 정비 작업이 이뤄졌다. 현재는 사적으로 지정돼 있다. ▼

정면 6칸, 측면 3칸인 노안당에서 먼저 눈여겨볼 곳은 편액이다. 대원군의 먼 친척이자 스승이었던 추사 김정희의 글자를 집자해 만들었는데, 필치가 부드럽고 독특하다. 지붕도 눈길을 잡아끈다. 처마 앞쪽에 햇볕과 비를 막는 차양이 달려 있다. 차양은 나무막대기 위에 판재를 깔고 함석을 덮은 형태로, 강릉 선교장의 열화당처럼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노안당은 편액을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는 누마루, 왼쪽에는 행각이 있다. ‘영화루’(迎和樓)로 불리는 누마루는 대원군이 손님맞이를 위해 사용했던 장소이고, 행각은 대원군의 시중을 드는 사람들이 머물던 곳이다. 당시 흥선대원군의 경호와 정보 수집을 돕던 인물은 천희연, 하정일, 장순규, 안필주 등이었는데, 이들을 ‘천하장안’이라고 일컬었다고 한다. 행각 내부에는 천희연의 모습이 재현돼 있다. 운현궁에서 중심이 되는 건물은 노락당이다. 노안당과 함께 세워진 노락당은 정면 10칸, 측면 3칸으로 광대하다. 운현궁 건물 중 유일하게 기둥머리에 날개 모양의 장식인 공포를 달아 멋스러움을 표현했고, 지붕도 겹처마로 처리했다. 고종은 낙성식 행사에서 대제학에게 ‘노락당

기’(老樂堂記)를 짓도록 했는데, 이 글에 ‘노락당과 하늘 사이가 한 자 다섯 치밖에 안 된다’는 구절이 있을 정도로 호화로웠다고 한다. 비록 궁전은 아니지만, 규모와 품격 면에서는 그에 견줄 만했다. 노락당은 집안의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공간이었다. 고종과 명성황후가 혼례를 올린 곳도 노락당이었다. 1866년 두 사람의 가례가 거행됐고, 모든 준비는 노락당에서 이뤄졌다. 대원군은 외척의 득세를 막기 위해 아버지를 일찍이 사별하고 친척이 많지 않은 명성황후를 왕비로 간택했다. 대원군의 아내인 부대부인 민씨도 혈연관계가 있던 그녀를 마음에 들어 했다. 하지만 명성황후는 훗날 대원군과 패권을 놓고 다투는 정치적 숙적이 된다. 노락당 북쪽에 있는 이로당은 고종의 혼인이 끝나고 3년이 지난 1869년에 지어졌다. 늘어나는 살림을 감당하지 못해 안채를 따로 만든 것이다.



노안당과 이로당 사이에 있는 노락당은 고종과 명성황후가 혼례식을 한 건물이다(왼쪽 페이지). 운현궁 내 유물전시관에서는 대원군의 생애와 정책, 고종과 명성황후의 혼인에 대해 알아보고, 옛 생활상이 담긴 여러 유물을 만나볼 수 있다.